



사북역과 바로 연결된 동원탄좌. 이 탄광의 운명도 올 7월까지다.

탄광 지역을 다룬 책들



《**새데**》.....**최인석**  
 폐광 위기에 놓인 강원도 탄광촌을 배경으로, 운동권 대학생의 눈에 비친 1980년대 후반 황량한 한국사회를 묘사했다. 《새데》는 박광수 감독에 의해 〈그들도 우리처럼〉으로 영화화돼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차가 사북을 지나간다**》 **김도연**, 문학동네  
 폭설에 길이 끊어지자 사북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하는 광원 출신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카지노에서 창박으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사북 지하탄광에 매몰됐을 당시의 경험을 떠올린다.

《**대설주의보**》.....**최승호**, 민음사  
 제6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품집. 사북 등 강원도 탄광지대에서 교사생활을 했던 시인은 대설주의보를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은유함으로써 1980년대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긴장감 넘치는 시적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정선아리랑**》.....**박세현**, 문학과지성사  
 강원도 정선의 풍속과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농민과 광원들의 생활을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집이다. 시인은 자신의 고향이며 소외된 주변 지역이기도 한 정선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들 삶의 한 모습으로 생생하게 보편화시킨다.

《**탄광마을 아이들**》.....**임길택**, 실천문학사  
 아이들의 눈으로 본 탄광마을 사람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시집이다. 가난과 고된 노동 그리고 예고도 없이 닥치는 재난이 삶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탄광마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아이들의 순박한 삶과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시인은 1997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탄광촌의 삶과 애환**》.....**사북청년회의소**, 선인  
 강원도 정선 사북·고한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고, 탄광과 광산 노동자의 삶을 재조명한 연구서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광산촌 사람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탄광개발의 역사와 탄광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과정을 담고 있다.

《**강원관광개발론**》.....**채용식**, 한울출판사  
 태백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서다. 〈탄전지역 카지노산업의 육성과 발전과제〉 〈태백지역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